

정치권 지방선거 겨냥 여론전 올인

한나라, 친이 지공·친박 속공 전열 정비 민주당, 원안 고수속 새 대응논리 고심

세종시 수정 후폭풍이 정계에 불어닥치며 오는 6·2 지방선거까지 삼킬 기세다.

한나라당은 친이(친이명박)계 대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지만 세종시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세종시 원안 고수에 "올인"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어 세종시 투쟁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욱이 세종시 원안 고수 당론이 수도권 여론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 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세종시 원안 추진이 곧 민심'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세종시를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여론전의 일환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국가 균형발전 주간'을 선포, 전문가와 긴급토론회, 정책위 차원의 전국 순회 설명회, 당 지도부의 혁신도시 방문 계획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론의 대대적 여론전에 경계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애초 '여권의 분열'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기를 잡아 대선까지 이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생각이었지만 여론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때문이다. 세종시 여론전의 결과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수도권에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세종시 수정안 반대 투쟁의 전리품을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가져갈 경우 '호남과 충청'의 지역 연대를 통한 수도권 지방선거 승리라는 전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권에 결코 이롭지 않고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등의 새로운 대응 논리를 개발, 수도권에 특화된 여론전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 등 주류 측에서는 일부 언론들이 13일 보도한 여론 조사결과, 수정안 찬성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초 우려했던 수준의 민심 이반이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친박계와의 불화와 충청권의 반대 여론 때문이다. 정치권설턴트사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부사장은 13일 "여당 내 두 세력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주장을 여론 속에서 관철하는 여론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이계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14일부

터 대전·충남을 겨냥해 당 차원의 국정보고대회를 열고, 의원별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각계 격파식 홍보전도 병행할 예정이다.

친박계도 박 전 대표가 연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며 친박 의원들을 독려하는 등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두 계파 간 갈등은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 시점을 놓고도 드러나고 있다. 친이계가 여론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구전'을 계획하는 반면, 친박계는 '매듭을 빨리 짓자'는 입장이다. 친박은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보자"는 것이지만 친이계는 "이르면 4월부터 논의 시작"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13일 오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성안길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원안수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박 암중모색

대국민 입장 발표 시점 고민



이명박(MB)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의 시점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정안이 발표된 만큼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직접 수정안의 내용과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형식은 대국민담화, 국민과 대화 등 여러가지를 검토했으나 특별 기자회견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회견의 시점. 청와대는 당초 금주 중 특별회견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박선규 대변인은 지난 11일 "이르면 금주 중 할 수도 있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준비 기간과 홍보효과 등을 감안할 때 14일 특별회견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 참모진과 협의한 끝에 금주중 특별회견을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본 뒤 택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청와대 정무라인 등에서는 금주중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정책라인 등에서는 여론의 동향을 살펴본 뒤 특별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요지부동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정국에서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세종시 수정안 반대 견해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마치 지난 2005년 말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국회 통과한 직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외로 나가 일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간 투쟁을 이끌었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 발표 하루 뒤인 12일 기자들과 만나 "충청지역을 설득하라고 한 얘기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는 뜻인데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다"며 여론 주류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박 전 대표의 '결기'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도 "머리가 아프다"며 그 강도에 놀라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이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 즉 신뢰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국익을 위한 길에 "정치적 타협"은 없다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설명한다.

정운찬 주마가편

"수정안 입법예고 빨리 빨리"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세종시 수정과 관련, "앞으로 빨리 입법예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빌레니엄포럼 월례세미나에 참석, "빨리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돼 총리실과 9부2처2청이 거문 나랏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그 혼란은 정치인이 말하는 정치적 신뢰 문제를 능가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신뢰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계산, 정치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을 고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 대사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 유치와 관련, "(세종시의)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들 것으로 보여 서울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꼭 오라고도 안한다"며 "(세종시 입주를) 강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언론사별 조사로 본 여론 추이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원안 지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수정안 반대 여론은 충청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49.9%가 찬성하고, 40%는 반대해 9.9%포인트 차이가 났다.

광주·전라권에서는 수정안 반대가 58.6%로, 찬성 23.9%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충청권의 반대 비율인 54.2%를 넘어섰다.

'수정안 반대' 호남이 충청보다 높아

전국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원안 고수보다 많아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천 2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으로 실시했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13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정안대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해야 한다'는 응답(37.5%)을 16.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반대로 원안 찬성이 53.0%

수정안 찬성(40.7%)보다 12.3%포인트 높게 나왔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는 충청권 500명과 비충청권 비충청권 700명 등 전국 성인남녀 1천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서를 통해 12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도 수정안 지지가 51.3%, 반대(34.

0%)보다 17.3%포인트 앞질렀다.

그러나 역시 충청권의 원안 지지는 55.4%였던 반면, 수정안 지지는 32.8%에 머물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와 11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찬성(47.5%), 반대(40.5%)였으며, 충청권에서는 찬성(36.4%), 반대(5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국 1천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원안 추진이 42.1%로, 수정안 추진(37.4%)을 4.7%포인트 차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원안 지지가 63.5%, 수정안 지지가 27.3%로 집계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eartPlus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심장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심장건강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5분만 투자하면 심장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관동맥질환 예방과 동맥경화 예방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장건강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nanomtech